日반출 조선왕실 사당 '관월당' 환지본처

日고덕원 주지 반환 먼저 제안
조선왕실 사당 건축물로 추측
日기업이 1920년대 반출 추정
관음보살상 봉안 기도처 활용돼
2010년 韓불교 귀환 추진 시초
"한일 양국 협력으로 이룬 성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해체 전 일본 고덕원 위치 당시 관월당 모습.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조선시대 왕실 사당 건축물로 알려진 '관월당(觀月堂)'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은 6월 24일 관월당 소장자인 일본 고덕원(高德院, 주지 사토 다카오)과 약정을 체결하고, 보존·복원을 위해 해체 후 한국에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밝혔다.

해외에 있는 한국 건물 전체가 국내로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반환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5월 당시 한일불교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일한불교교류협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내 보수 우익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과 비판이 커지며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2019년 고덕원 주지이자 게이오대에서 민족학과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토 다카오 교수가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에 연락해 오면서 반환 논의가 재개됐다.

지난해 반환이 최종 합의되자 관월당 건물을 해체한 뒤 부재를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이송했고, 이송된 모든 부재는 현재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해 관리 중이다. 해체 후 부재는 석재와 철물 8건 401점, 기와 12건 3457점, 목재 74건 1124점에 이른다.

관월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18~19세기경 지어진 조선 왕실 사당으로 추정된다. 경복궁 내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라 송현동과 통의동 등 세 군데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1870~1939)에게 기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월당은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1930년대에는 스기노 기세이가 가마쿠라시의 고덕원이라는 사찰에 기증하면서 고덕원 경내로 이전돼 해체 전까지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기도처로 활용돼 왔다.

관월당의 국내 귀환은 소장자인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가 원소장처인 한국에서 보존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사토 다카오 주지는 사찰 경내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에 큰 관심을 두고 한국 측에 연락해 왔으며, 이후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관월당 보존을 위해 다년간 신뢰를 축적하면서 연구조사, 단청 기록화 및 보존처리, 정밀실측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각 사업은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한국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등 한일 공동 협업 프로젝트의 형태로 이어졌다.

해체와 운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관월당 귀환을 이끈 사토 다카오 주지는 6월 24일 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된 언론공개회에서 "한국과 협업을 통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분명히 규명했고 최적의 보존을 위해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알게 됐다"면서 "관월당이 지난 100년 간 고덕원에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한국 내 본래 장소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관월당 귀환은 소장자의 진정성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프로젝트"라면서 "문화유산을 매개로 상호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관월당에 대한 정확한 용도와 위치를 확인한 뒤 국내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물로 지정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청도 운문사 소장)

운문사 소장 불교 경전 목판들 보물됐다

국가유산청 6월 20일 지정 발표
'사찰 소장 유산 일제조사' 성과

청도 운문사에 소장 중인 목판 4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청도 운문사 소장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치문경훈' 목판 4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한다"고 6월 20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청도 운문사 소장 목판 4건은 국가유산청과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성보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유산 일제조사' 사업을 통해 지정이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4건 중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은 1515년(중종 10년) 조성된 목판으로, 총 33판 완질이다. 각선(覺禪) 선사의 주도 아래, 처호(處浩)가 목판을 제작하고 최호(崔浩)가 글자를 새겨 만들어졌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은 1588년(선조 21년) 〈원각경〉에 해설을 더한 〈원각경약소(圓覺經略疏)〉를 토대로 조성된 목판으로, 총 104판 완질이다. 석헌(釋軒) 선사의 주도 아래, 도림(道林)이 글을 쓰고 지희(智熙)가 목판을 제작한 후 인헌(印軒) 등이 글자를 새겨 조성됐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은 1588년(선조 21년) 조성된 목판으로 총 37판 완질이다. 석헌(釋軒) 선사의 주도 아래, 도림(道林)이 글을 쓰고 지희(智熙)가 목판을 제작한 후 의련(儀璉) 등이 글자를 새겨 조성됐다.

'치문경훈 목판'은 1588년(선조 21년) 조성된 목판으로 총 90판 완질이다. 홍인(弘印) 선사의 주도 아래, 도림(道林)이 교정하고, 종원(宗元)이 목판을 제작한 후 법천(法天) 등이 글자를 새겨 만들어졌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불교교육학' 연구기관 건립한다

건학위 기본기관장 회의서
불교학술원 설립 계획 보고
총장 추진 사업, 9월 개소

동국대가 불교교육학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나선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6월 25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1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5대 공통의제 관련 사업 경과와 계획 등을 보고·공유했던 이날 회의에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 이하 학술원)은 산하 연구소 건립계획을 밝혔다.

건립 추진되는 연구기관은 '불교교육연구소'로,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화 및 실용화해 이를 교육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 설립은 장환영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학과 교육학을 접목해 새로운 승가·신도교육, 전법론을 개발하는 '불교교육학' 정립은 윤재웅 동국대 총장의 역점 추진 사업이기도 하다. 실제 윤 총장은 6월 24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린 '2025 한국교수불자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불교교육학'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윤 총장은 '불교 혁신' 방안 중 하나로 불교교육학 체계 구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 불교학과 교육학은 세밀하게 발전했는데 불교교육학 분야는 아직 싹도 트지 않았다"고 지적한 윤 총장은 "승려교육부터 비불자 대상 교육까지, 교리교육부터 전법 방법론까지 불교교육학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면서 "불교교육학은 청년전법의 지속가능한 엔진에 해당된다.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제일 걱정한 분야가 승려교육이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원은 "'불교교육연구소'를 오는 9월 중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라며 "'불교교육학'을 하나의 독립적 학문 분야로 정립해 혁신적 전법 전략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불교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동국대 출판문화원은 지난 4월 29일 봉정한 〈불교사전〉이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 탑재돼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음을 보고했으며, 네이버 사전 검색 서비스 연동 추진 계획도 밝혔다. 출판문화원은 "지난 6월 12일 네이버 사전검색팀과 화상 회의를 통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교사전〉 노출방안을 논의했다"며 "현재 네이버가 운영하는 '오픈사전 Pro'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면 곧 제2회 영캠프가 열린다. 올해도 9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영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서울캠퍼스 2500명, WISE캠퍼스 1800명이 수계를 받았다. 올해 영캠프에도 많은 청년들이 수계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 창립학술대회

7월 5일 國博 소강당서…소장에 정각 스님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아시아 종교 전통 미술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가 창립했다.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소장 정각 스님)는 7월 5일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창립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는 불교미술과 아시아 종교 전통미술 등을 연구하는 학술공동체로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정각 스님이 초대 소장을 맡았으며, 김연미(이화여대)·신광희(충북대)·엄기표(단국대)·서지민(충북대)·이승혜(동아대)·김현중(전남대)·김자현(동국대) 교수 등 전문학자들이 함께 한다.

아시아 종교미술에 대한 융합적 시각과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번 창립학술대회에서는 유진왕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의 '불교미술의 미래는 무엇인가'와 행크 글라스만 하버포드 칼리지 아시아 연구 석좌교수의 '일본에서의 성불(成佛): 불교 장례의례와 오륜탑형 예복만다라' 기조연설로 문을 연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아시아종교미술연구소장 정각 스님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아미타삼존불상(1333년) 복장 발원문과 다라니-고려시대 연기법송의 사용과 티베트불교 복장 규범의 차용' △신광희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극락으로 가는 여정, 여성, 그리고 한글: 조선조 전기 안락국태자경변상도' △김연미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의 '해양 및 영적 지형과 신라불교 건축'이 발표된다.

신중일 기자

범어사 중심 부산독립운동사를 만나다

부산박물관 '광복의 시간'展
6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범어사 등 불교독립운동 조명



부산박물관은 6월 20일 기획전시실에서 '광복의 시간, 그날을 걷다: 부산의 독립운동과 범어사' 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부산박물관에서 막을 올렸다. 전시는 일제강점기 부산의 독립운동과 함께, 불교계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범어사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부산박물관은 6월 20일 기획전시실에서 '광복의 시간, 그날을 걷다: 부산의 독립운동과 범어사' 특별전의 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6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56일간 이어지며, 항일운동의 거점 도시로서의 부산,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불교계의 행보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개막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BBS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BBS 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 등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축사에서 "이 전시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세를 위한 정신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불법을 지키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일이 다르지 않음을 절 안팎에서 온몸으로 실천했던 그날의 외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에도 자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범어사의 정신이 전시를 통해 온전히 전해지길 바란다"며 "한국불교의 수행자로서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깊은 감동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부 '군막사찰에서 선찰대본산으로'는 지역 대표 사찰로서의 범어사 역사와 수행 전통을 다룬다. 2부 '부산 독립운동의 요람, 범어사'는 일제의 침탈에 저항했던 스님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한다. 3부 '부산의 함성, 대한독립만세'에서는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대표적인 항일투쟁 사례들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물로는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 유묵', 백용성·한용운 스님 관련 유물, 오성월 스님의 행적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조선독립신문', 백범 김구의 친필 편지, 서영해 지사의 타자기 등 당시 시대상을 보여 주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관람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특히 범어사 돌담길을 모티프로 한 공간 연출은 현장감을 더한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개방되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051-610-714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韓불교학회, 성운학술상 시상식·학술대회

6월 24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가 6월 24일 서울 동국대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제8회 성운학술상 시상식 및 성운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2018년 제정된 성운학술상은 (사)한국불교학회 제22대 회장을 역임한 서울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의 발의와 재정지원에 따라 한국불교 염불신앙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그 학문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불교학회장 자현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기도와 가피 등 염불신앙은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근본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를 알리고 학술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불교학회가 학문과 더불어 신행까지 선도하는 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도 축사에서 염불신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성운 스님은 "역사적으로도 불교가 억압 당할 때 염불가피에 의지해 살아왔다. 한국불교가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이 땅에 부처님 등불이 켜지려면 염불가피 신앙운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